

숲과 나무의 '희생'을 생각하는 출판

최 열 |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도요새 대표

20년 넘게 환경운동가로 살다보니 '운동의 필요' 때문에 책 만드는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동안 나의 책 만들기는 엄밀한 의미에서 자족적인 것이었는지 모른다. 지난해 3월, 최승호 시인과 의기투합해 생태·환경도서 전문출판사를 세웠다. 운동가가 필요한 책이 아니라 대중의 환경생태적 감수성을 복원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본격적으로 책 만드는 일에 나서고 보니 더럭 겁이 났다.

환경운동가에게 책은 애증의 존재다. 운동의 인식과 실천을 불러오는 책에 의해 운동가의 교양과 행동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운동가에게 책은 애정의 대상을 넘어서는 스승이다. 그러나 책이 종이이고 종이는 필프며 필프는 숲과 나무라는 점에서 보면, 오늘날 세상에 널린 저 무수한 책들 가운데 "세상에 태어난 소임을 다 하고 가는 것들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UN식량농업기구(EAO)에 따르면 세계의 종이 및 판지생산량은 1998년 2억9,400만톤이었다. 이는 1950년 이래 6배나 증가한 것이다. 1인당 소비량 또한 18kg에서 50kg으로 증가했다. 오는 2010년 이면 종이생산량은 3억9,400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런 종이소비는 1년에 1인당 335kg을 소비하는,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에 편중돼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 빠른 속도로 종이

소비가 늘고, 더구나 세계적으로 종이소비량 증가를 주도하는 게 다름 아닌 인쇄 및 필기용 종이 소비라는 점을 생각하면 사정은 조금 달라진다. 지난 1980년 이후 세계 종이소비는 75% 늘었는데, 인쇄 및 필기용 종이소비는 112%나 뛰었다. 책을 읽고 종이에 글씨를 쓰는 지상의 그 누구도 이 놀라운 소비의 증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숲과 나무의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땀감으로 사용되는 나무 외에 모든 공업용 목재의 42%가 종이를 만드는 데 쓰인다는 이 놀라운 기록 앞에서 책을 만드는 사람과 책을 읽는 사람들이 '나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허해져야 한다'는 나의 생각이 지나친 것은 아닐 것이다.

더구나 나무를 종이로 만드는 공정은 전형적인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면모를 보인다. 생산공정 상 독성화학물질도 많이 배출한다. 게다가 인쇄하는 공정 또한 일반적인 경우, 결코 환경친화적이지 않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녹색출판을 말한다. 이 이율배반의 아픈 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책 자체의 환경적 진정성'을 확보하는 일일 것이다. 책을 읽은 이들의 삶이 책 읽기 전과 바뀌는 것. 바뀌어도 꼭 '녹색변환' 돼야 한다는 것이 그것일 것이다. 하지만 안이하게 '그럼 책을 잘 만들어야지' 하는 일반론 수준으로 떨어지는 태도는 올바른지 않다.

엄정하게 말하자면 '책을 만드는 일에 면죄부는 없다. 다만 최소화가 있을 뿐'이다. 그런 까닭에 나의 책 만들기는 언제나 두렵고 삼가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공자는 '전하되 짓지 않는다'고 해 책을 새로이 세상에 내놓는 일을 경계했다. 무수한 공론이 떠도는 세상에 말 한 마디 더 보태지 않겠다는 결단이었다. 오늘날 책 만드는 이의 마음 또한 저 옛 스승의 마음을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

통권 제264호 | 1999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홍조

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김지원

기자 오원진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사진 한준호

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서정희

출판저널·박은정

업무부장 운동호

업무·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 - 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 - 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 - 1431 · 2 | 편집

732 - 1433 | 업무·정기구독문의

FAX 722 - 1174

E-mail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